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 교회성구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 이주일의 말씀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장 19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12일 앞둔 충현올림픽

각부서별 회의 열어 준비에 박차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오진국장
로)는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칼빈홀에서
본부집행위원 및 각팀 임원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모세, 베드로, 엘리야, 바울팀의 단장, 부단
장, 총감독, 후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2일 앞둔 충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체제에의 비상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입장식, 게임운영,
주차문제, 응원, 가장행렬 등의 기본적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사진은 카메라 초점 참조)

특히 이날 올림픽행사는 비가 와도 정신여
고 운동장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으며, 올림픽
노래는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각팀의 응원은 규제없이 진행하되 정신
여고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정
연하게 각 팀이 주의하며 실행하기로 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대중교통수단
인 지하철과, 버스이용을 권장하기로 하는 한편
가장행렬은 교구별로 실시하나 짙막한 시간
내에 마치기로 했다.

위원회측에서 마련한 경기진행 시간표에
의하면, 오전 9시 30분~10시 가장행렬 입장,
10시부터 충현햇빛입장 점화, 10시 10분~2
5분 개회예배, 10시 25분~10시 30분 개회선
언, 선수 선서, 10시 50분~11시 팀별 응원,
11시부터 게임이 진행된다.

오후 4시 30분 믿음, 소망, 사랑 게임이 끝나
면 이어서 폐회예배가 있게되고 오후 5시엔
모두 귀가하도록 했다.

제직회 부차장 회의
30일 오후 3시 30분

5월 정기제직회를 앞두고 제직회에 속한
부차장들의 준비회의가 4월 30일 오후 3시 3
0분 선교관 5층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해당 관련 부차장들은 보고서 및 제직서
등을 사전에 제직회 서기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김창인 원로 목사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

원로 김창인목사가 지난 4월 26일 오후 6
시 예정대로 귀국하였다.

목사님 내외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트랩
을 내렸고 김포공항에 파종나간 성도들과
일일히 악수로서 인사를 대신했다.

김목사는 그동안 기도도 성원해준 충현성
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
다.

성전현당 기념패 증정
충현올림픽 참가자에게

제2회 충현올림픽 참가자에게 성전현당
기념패를 드린다.

작년(88년) 12월 20일 현당된 충현교회
본당을 색인한 기념패는 본교회 김영삼장로
가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선교사 특강가 저

교회학교 장년2부(부장/윤인현장로)는
지난 4월 23일 12시 30분 소석관 314호실에서
전퍼령 평신도 선교사의 특강 및 신앙간증을
가졌다.



▲ 충현올림픽이 앞으로 12일밖에 안남았다. 집행위원들과 각팀 임원들이 효과적인
게임운영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4월 25일 저녁)



▲ 오즈음 부쩍 교구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성도의 친교도 목적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을가 기도 하며 말씀도 들린다.

카메라초점

연합교구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각교구 교역자 · 장로 · 성도들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협동심과 팀웍 위주의 일체감 형성하는 좋은 결과 나타나

연합 교구모임이 충현올림픽 행사를 계기
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때 모세팀(1교구, 7교구, 13교구)은 4
월 16일부터 갈릴라홀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
며, 엘리야팀(4교구, 5교구, 8교구, 11교구)
도 4월 23일부터 소석관 205호(유치부실)
에서 모임을 갖는다.

교구가 연합으로 팀을 이루어 모임을 가지
므로 교역자, 장로들, 성도들의 교제의 폭이
넓어졌으며, 협동심과 팀웍 위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교회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인 사랑결핍
요인이 해소되었고, 이름과 얼굴을 따로 알고
있던 성도들간의 친교가 더욱 두터워지게
된 것이다.

경로대학 학생회 임원진 선임

충현 살롱 경로대학은 지난 4월 13일 입학

식 이후 학생회 총회를 열어 임원단을 선출,
회장에 박관영장로를 선출했다.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관영, ▲부회장/박순선, 정근신,
▲총무/김세홍, ▲서기/이순정, ▲회계/최경
애, ▲서예부장/김옥현, ▲음악부장/이익숙,
▲신앙부장/신길남, ▲문예부장/김순실, ▲명
예회장/윤두환.

권사회 기도회 불붙어
많은 여성도들의 참여를

4월 한달동안 4권사들의 기도원 철야기도
총인원 수가 304명으로 집계되었다.

매주 수요일 철야기도회가 날이갈수록
불이 붙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쳐 응답받고
하산하는 권사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충현기도원의 수요철야지는 권사들뿐 아니

라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충현의 여성도님들
도 함께 은혜받기를 주최측은 원하고 있다.

충현부부 교양세미나
등록비 5천원으로 할인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오는 5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개최될 제2
회 충현부부 교양세미나가 본당에서 개최된
다.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동세미나에는 작년 제1회 수요자들
도 모두 등록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등록비는
부부당 5천원이다.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실

여러분들의 신문인 「주간충
현」편집국이 소석관 112호실에
마련되었다.

지상강단

본문 / 왕상 18장 1~40절

엘리아가 살던 시대는 바알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문화가 이스라엘 전역을 더럽히고 있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아는 이런 시대에서 단신으로 시대의 죄악에 도전하여 바알의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죄악에 빠짐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아합왕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숭배를 국교로 삼았고,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신전이 세워졌고, 이와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고 나라는 완전히 이교화되어 버렸으며, 이 일로 큰 재난이 임했습니다.

엘리아는 고통과 불행과 국가적 재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왕의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임을 지적하였고, 그 사실을 증명해 위해 아합왕에게 영적인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합과 정치적 대결보다 바알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통해 근본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아세라 여신을 음란하게 제사하였듯이 육신을 제물로 삼아 쾌락을 섬깁니다. 학원과 노동현장에는 좌경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유익을 보며 영리하고 세련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절대적 믿음, 순수 복음신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운명이나 환경과 조건에 얽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대



엘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 그 시대의 죄악에 도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량의 물을

하나님을 위해 싸운 엘리아

하나님의 영광위해 살고자하는 순수한 열정가진 사람 귀하게 여겨
이 시대의 큰 우상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이라는 암시적 우상이 득세합니다. 암시적 우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죄악된 사상입니다. 이 죄악된 이념과 사상에 복음신앙으로 도전하여야 합니다.

또 이시대에 더욱 큰 우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기독교에까지 침투하여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화시키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을 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찾은지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사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정이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장근(목사·제5교구지도·소년부 지도)

장로컬럼

크리스찬과 민주주의



박용삼
(장로·가브리엘신앙대 대장)

J. 네루는 “민주주의는 좋다. 이는 다른 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어떤 정치가는 “민주주의는 행편없는 국가제도에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어서 그것을 따른다.”라고 했다.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 바로 여기에서

“소수의견을 보다 넓은 아량 갖고 검토해야”

민주적인 결정방식의 헛점이 들어나고 있음을 보게된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이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 그러한 결정은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에서든지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반대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소수’는 무시하게 되고 이들은 ‘잠재적인 분노’로서 남게될 것이다.

교회의 의결기관인 당회나 제직회에서 흔히 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점, 즉 다수에 의한 결정이 좌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교회의 의결에서는 결정기관의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백년사에서 수많은 교회의 분열을 경험해 왔다. 이 교회 분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교회의 수많은 ‘시행착오된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사람 노릇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은 매순간 결정의 기로에 서게된다.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할가, 누구를 만날가’하고 결정의 홍수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결정의 생’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성령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된다면 새행복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교회 의결기관에서 양두에 두어야 할 것인 채택되지 않은 소수의 의견을 보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절대다수인 바알의 추종자들 외에 소수의 남은자(remnant)가 있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크리스찬의 민주주의는 수의 횡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민주주의 인식이 있을 때 기독교는 세상 민주주의 제도를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청년2부 면려회 회원들 시립소년원 방문예배

교회학교 청년2부 면려회(회장/원성수 집사)는 4월30일 오후1시 시립소년원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행사도 갖는다.

불우한 원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면서 같이 어울려 행세에의 따뜻한 정을 나눈다.

신간도서안내 충천도서관 제공

충천도서관에 신간도서가 많이 들어왔다. 지난 주간 들어온 신간도서의 저자, 도서명,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많은 열람을 도서관측은 바라고 있다.

저 자 명	도 서 명	출 판 사
한치호	추월학교 운영 필수지침서 복합한 교사	기민사
존 칼빈	(칼빈의 용기 강해) 유과 하나님	지평서원
제리 화이트	그리스도의 주재권	네비게이토
올리브사	시베리아의 불꽃	전도출판사
낸시 하데스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	생명의 말씀사
로자린드 고포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생명의 말씀사
존 헨리	타락한 사회의 그리스도인	기독교회사
김용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침반사
윌리엄B. 투르하트	기독교인의 경제원리	교회교육연구원
리처드 범브란트	새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거고출판부
데이비드 리온	基督教과 社會學	기독교문서선교회
워런W. 위어스비	격려하면서 살라	나침반사
도날드 매크레오드	성령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	여수문
리런드 라이컨	상상의 승리	성광문화사
김성린	기독교 교리 개설	개혁주의신학협회
노르만L. 기슬러	성경무오(無誤): 도전과 용전	엠마오
고석희	새계복음화 기도운동	W.E.P.A
프랜시스 니컬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哲學史 概論	성광문화사
이상구	이상구 박사의 복음과 건강	홍성사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기독교문서선교회
프린시스 웨퍼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생명의 말씀사
C.H. 알리	대학의 위기 (개독교적 비판과 대안)	성경원기서
김영학	종말적 선교	한국종교학연구소
윌리엄B. 투르하트	기독교인의 경제원리	교회교육연구원
A.M. 하킨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사
로저S. 그린웨이	도회적 복음화와 성령의 능력	여수문
이병길	중생선교의 이해와 오늘 -한국선교사가 본 중국 선교-	개혁주의신학협회
로버트 윌러	학구적 삶을 위한 매일 Q.A. (성경에 나타난 10인의 기도) 하나님께 대 가까이	기독교회사
존 화이트	한국의 항쟁	엠마오
비실레아 슬링크	선양성숙자(영성(제자)훈련)	여수문
로렌스 리처즈	개혁주의 성령론	여수문
존 오웬	개혁주의 성령론	여수문
김용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침반사

① 구원열차

- 인원: 각 팀주자 12명, 보조 주자 200명 (남녀 비율 50%, 유년 20명, 초·소년 20명).
- 도구: 구원열차 파이프
- 대형: 주자 12명은 2인 1조가 되어 6개조로 구성하고 보조 주자 200명은 본부석을 향하여 2열 종대로 선다.
- 방법: 2인 1조가 된 주자는 구원열차파이프 양쪽에 서서 파이프를 들고 있다. 시작 신호가 나면 자기팀 보조 주자를 향해 달려가 보조 주자 발 밑으로 파이프를 통과시킨다. 파이프를 끝까지 다 통과시킨 후 주자는 반환점을 돌아 다음 주자에게 파이프를 인계한다(릴레이). 이때 보조 주자는 자기 앞에 파이프가 오면 제자리에서 강충 뛰어 파이프가 자기 발에 걸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 심사: 1, 2, 3, 4등

② 슈퍼축구

- 인원: 각팀 15명(대4, 직4, 청4, 장3)
- 도구: 점보공 2개
- 대형: 축구경기 대형
- 방법: 점보공 2개를 동시에 활용하여 득점하는 경기이며 손발을 같이 쓸 수 있다.
- 심사: A조, B조, 골득실, 1, 2, 3, 4등

③ 충현교회 건축

- 인원: 각 팀 20명(사랑부, 예배다부 20명)
- 도구: "충""현""교""회"라는 글씨가 써있는 조립 글씨판
- 대형: 조립글씨가 쌓여져 있는 곳에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음.
- 방법: 신호에 따라 각 팀 선수들은 흠어져

있는 자기팀의 글자 조각을 들고 지정 위치에 모여 글씨가 완성되도록 조립해 쌓아 올린다. 조립이 끝나면 "충""현""교""회"라는 대형 글씨가 나타난다.

- 심사: 개인경기 자유형

④ 줄다리기

- 인원: 각 팀 50명(대10, 직10, 청10, 장30, 남25, 여25명)
- 도구: 줄다리기 줄, 응원 깃발.
- 대형: 2열 종대로 상대팀과 마주보고 정렬
- 방법: 각 팀별로 줄다리기 줄 양쪽에 도열한 후 줄을 잡고 서있다가 신호와 함께 자기 팀 쪽으로 잡아 당겨 줄다리기 줄을 끌고 온다. 3판 2승으로 승부를 가린다.
- 심사: 순위 1, 2, 3, 4등

⑤ 4백미터 릴레이

- 인원: 각 팀 12명(대4, 직4, 청2, 장2, 남6, 여6명)
- 도구: 바톤
- 대형: 400m 트랙 릴레이 경기 대형
- 방법: 각팀 4명이 1개조가 되어 릴레이 지역에 선다. 신호에 따라 첫번째 주자는 바톤을 들고 다음 주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바톤을 넘겨 준다. 바톤을 넘겨 받은 두번째 주자도 같은 방법으로 다음 지역으로 달려가 바톤을 넘겨 준다. 4명이 1개조가 되며 각 팀은 3개조로 구성하여 3바퀴를 돌아 끝인한다.
- 심사: 순위 1, 2, 3, 4등

⑥ 거북이 릴레이

- 인원: 각 팀 16명(대4, 직4, 청4, 장4, 여자16명)
- 도구: 타원형의 큰 대야
- 대형: 4명이 1개조가 되어 타원형의 대야를 뒤집어 쓴다.
- 방법: 신호에 따라 대야를 쓴 첫번째 조 4명은 다음 릴레이 지역까지 함께 달려가 두번째 조에게 대야를 인계한다. 대야를 인계

하도록 하여 릴레이 대형으로 선다.

- 방법: 바톤을 쥐고 400m 릴레이 경기요령으로 경기를 한다.
- 심사: 순위 1, 2, 3, 4등

⑨ 아마겟돈 전쟁

- 인원: 각 팀 100명(유년20, 초10, 소년10, 중10, 고10, 대5, 직5, 청5, 장5, 소망20명)
- 도구: 풍선, 끈
- 대형: 선수가 각자 2개의 풍선을 붙여 끈으로 풍선을 묶고 묶은 풍선을 발목에 다시 묶는다. 1인 2개의 풍선이 좌·우측 발목에 한개씩 달린 상태로 팀별로 정렬한다.(동, 서, 남, 북으로 집합)
- 방법: 지정구역 안에서 신호에 따라 자기팀의 것이 아닌 풍선은 모두 밟아 터트린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팀별로 다시 모여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풍선의 숫자로 승패를 가린다.
- 심사: 순위 1, 2, 3, 4등

⑩ 믿음·소망·사랑

- 인원: 유치부, 소망부 전원(남·여 500명)
 - 도구: 대형 주사위
 - 대형: 자유 대형
 - 방법: 믿음, 소망, 사랑이 표시된 대형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경기 참가자는 예상되는 지역(믿음지역, 소망지역, 사랑지역)에 찾아가 서 있다. 경기 참가자의 정렬이 끝났을 때 주사위를 던져 해당있는 2/3 인원을 탈락시킨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여 1명까지 선발한다.
 - 심사: 개인경기, 자유형
- 해설: 전승훈(경기진행부)

충현교회 성장연구원 한학기를 마치고

“목회자 삼청교육대”

서울 동(同)지역교회 담임목사가 “홍해작전” 40일 새벽기도회에 본교회 새벽기도회를 비워놓고 한번 참석해 보았다.

새벽기도회에 3천명 7천명이 모여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한 말로 홍해 작전 기도회는 거룩한 난리요, 장관이었다. 은혜로운 새벽기도회 설교말씀에 매료되어 교회성장 세미나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배우기로 했다. 10주간 한 학기를 마친 소감은 원장 충현교회 위임 이종운 목사님께 너무 많이 얻어 맞았다. 전 공화국 출범시기에 강패나 할 일 없이 건들거리며 민폐나 끼치는 놈팽이들을 잡아들여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정신차리게 해주는 교육이 “삼청교육대”라고 하였다. 충현교회 교회성장 세미나는 목사들을 잡아 말씀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 놓는 목회자 삼청교육대였다. 첫시간부터 목회자들의 세속화로 오염된 정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도록 꽤도 너무 꽤도 정신없이 맞은 소감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강패 재 교육

삼청교육대는 사상자가 많아 후일에 원성이 많았지만 목회자 삼청교육대는 사상자는 한사람도 없고 회생자, 재생자만 쏟아져, 1학기를 마친 지금에는 호되게 맞고도 감사와 예수께 충성심만 생겼다.

앞서 서울 여러 곳에서 교회성장 교육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배웠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곤 하였다. “이번 강의가 예수님의 말씀이며 가르침입니까?” 수강생인 피교육자가 교육자에게 외면된 질문을 하고는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충현교회 성장세미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은 커녕 말씀에 쫓겨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벅은 자신, 되지도 못하고 될 줄 알았든 자신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신하고 싶은 말씀에 강타를 맞았다.

목회자 자신에게 새로운 마음의 예수께

충성, 헌신의 수혈이 되었으니 교회에 변화는 명확하고 시간 문제이다.

지난 한 학기는 값진 소중한 한 학기였고 한국교회에 거룩한 새 바람이 충현교회로 하여금 일어나리라 믿는다.

충현교회 위임목사님과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학기 등록을 마치고 더 배워야 하기에 필자의 소속교회와 성명은 아직 익명에 붙인다.

편집국)에 마련되었다.

주일 아침예배 이후 저녁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그림 전시된 칼빈홀

본교회 소식당 칼빈홀에 그림이 전시되어 찾는 이와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한층 기쁘게 했다. 이 그림들은 중견화백인 본교회 이병학 사무장로가 기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대상으로 그린 생동감있는 그림으로 평가받아 화단에서는 인기있는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현 프리즘

☆ 충현올림픽 준비 열기고조 제2회 충현올림픽 개최일(5월12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돌아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오후7시엔 경기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심판위원 모임을 가졌고, 그 이튿날(25일) 오후7시엔 칼빈홀에서 각팀 단장, 부단장, 총감독, 응원단장 연석회의가 잇따라 열렸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올림픽체제」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폐회식 입장식 요령, 경기운영에 따른 게임설명회, 각팀의 응원전 요령, 그리고 교통이용 안내 및 화장실 문제까지 세심한 부분에 확인절차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충현올림픽지정가 390장으로 확정
사랑부 간식 제공하는 박옥림 집사

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 지정가를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로 확정했으며, 선수대표 선서는 각팀 응원단장의 추천에 따라 모세팀 대표가 선서키로 했다.

☆ 사랑부 간식주는 박집사 제10교구 장안구역 박옥림 집사는 지난 8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주일마다 사랑부(부장/이종석장로)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하

고 있다. 교육위원회 산하 특수교육부인 사랑부는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교회학교이다.

☆ 경로당 마련 연세높으신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오후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경로당이 소석관 115호실(전 주간충현

초대교회의 사랑과 은혜 총만

(제3교구 가족 영성훈련을 마치고)

지난 4월21일 오후8시 갈릴리움에서 3교구 가족이 영적 훈련과 단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2백여명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친교로 지낸 유익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예배시작전 박종윤 인도로 「야드니엘」성일 통팀과 함께 복음송과 율동으로 마음문을 연다음 교구장인 오진국 장로 사회로 제1부 예배가 진행되었다.

5지역장인 노광현 장로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며, 개포구역 허경화 권찰의 특송이 있었다.

송태근 목사(3교구 지도)의 히브리어 5장 12절의 성경을 본문으로 "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제목의 설교, 그리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특강 시간은 "부부 싸움의 실재와 처방"이란 제목으로 구명신 전도사의 강의가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개나라 목련꽃들의 잔해가 낙엽처럼 뜰에 깔린 화창한 아침이다. 못 생명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고도 남을 자비로운 햇살이 오늘도 창을 넘어 그 밝은 빛으로 문안을 보내온다.

뜻하지 않게 다친 허리로 보름째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몸에 신열이 솟는다. 못나갔던 지난 주일 예배후 문안차 방문해준 분들을 건강한 몸으로 빨리 만나고 싶다.

주여!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저를 속히 구원하소서
제게 지금 고통이 있으나
저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이 저의 위로가 됩니다.

지난 1월 내가 처음으로 충현교회를 찾은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가 아니었다. 의사소통의 불편 때문에 가족 외의 대인교제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원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서 수화라는 수단에 의해서나마 에바다부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잠언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임의로 계획을 세울찌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다.

지금 나의 생활에 적잖이 기쁨이 되었던 것은 충현교회를 찾기 전의 내게 지금과 버금갈 즐거움이나 위안이 있었다면 문학소설과 영화, 그리고 고기야 잡히든 말든 시간만 나면 물을 찾는 독행늪이 뿐이었다.

그러나 영화나 독서에 깊이 빠져들수록 정비레로 커져만 가는 가슴 속의 공동과 허무감이 견디기 어려워 세해에 둘자 무엇인가에 전심으로 귀의하고 싶었고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고 싶었다.

다른 교회와 어딘가 다른 교회인 충현재단은 이러한 나에게 안정맞춤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으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돌발에 뿌려진 씨앗이었던 내게 예수님은 아주 새롭게 다가오셨다.

구전도사는 강의에서 「골목마다 문제가아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아 아니라 문제의 어른들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아이들과 어른들과 부부에 관한 것들을 강의했다.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헌신 각오 다짐

남성도 많이 참석한 구역에 푸짐한 상품도

특히 부모들의 기초적인 기도의 중요성과 부모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고, 잠언 13장 24절을 근거로 「아이들을 채벌하되 감정적으로 다스려서는 안되고, 채벌 후엔 부모도 회개하고,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어루만져 주는 진실한 사랑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에베소 5장22-25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할 의무는 사랑이며, 아내의 할 사명은 복종(뚝는 배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평균점수를 높이는 가정이 되려면 하향식 언어(반말,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꼭 존대말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인내심으로 가정의 화평을 지키되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처방은 「하나

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시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처방됨」을 일깨웠다.

제3부 친교시간에는 제1지역장 박승준 장로 사회로 진행, 각자가 준비해온 작은 정성들을 모아 「큰 사랑의 선물 추첨」행사를 가졌다.

입장시 미리 나누어진 추첨권을 뽑아 주는 즐거움과 받아서 기쁜 모습들이 화기에 애했

으며, 대치구역 김희선 집사 가정의 가족창으로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하면서 모두들 감사의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또 남성도들이 가장 많이 출석율을 보인 청실구역(협력구역장/김상규안수집사)이 뽑혀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었다.

마지막 행사로 새로 등록된 가정이 소개되었고 사회자의 첫투전 질문에 척척반아 넘기는 새신자들을 볼 때,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함을 다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한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은혜 생각하며....." 찬양을 부른 후 송태근 지도교역자의 폐회기도로 3교구 가족 영성훈련을 은혜 중에 마쳤다.

이복희(집사·제3교구 대치1구역장)

확대 독자의 광장

「주간충현」을 관심있게 애독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글을 게재하여 피차 기도할 수 있는 「독자의 광장」을 이번호에는 확대하여 실게됩니다. 계속적인 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오늘도 「에바다」하소서

단지 교양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일었던 성정이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한편 나의 일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순종하는 삶이 인간된 자의 좁은 사고와 생활고에서는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4월을 맞아 심방오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바쁘다는 핑계로 두번이나 거부하는 악을 행하게 된

저를 벌하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제 거의 회복된 몸으로 엎드려 내가 소속되어 말씀을 배우는 「에바다」부서의

바쁘다는 핑계로 심방 거절하고 사흘 후 허리다쳐

이젠 사회경험 없는 청각장애자 위해 전도하기로 다짐

다.

그후 사흘만에 허리를 다치고 지금 보름째 그 핑계였던 바쁜 일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뜻이 옳은 것과

복음전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어 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심신장애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세우고자 장애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자도 꽤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불특

정함이 전혀 없는 청각장애자를 전도할 수 있다면 조기 교육실도 갖추고 있는 우리 교회 여건상 영적 만이 아닌 현실적 구원도 되는 것이 아닐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작은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나기를 엿들려 간구해 본다.

배병호(에바다 성인부)

선배가정 초청좌담회 성료

지난주(4월 23일) 새가정부(부장/박승준 장로)에서 진행된 선배가정 초청좌담회에는 가장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인 결혼한 지 10년 내외의 박창섭 집사, 백운홍 집사, 박성명 집사 가정을 초대하여 새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세밀히 꼬집어 주고 주안에서 해결한 경험들을 서로 나누었다.

특히 금전 만능주의의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있어 자칫 무디어지고 소홀해질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었던 부부 서로간의 격려와 아내들의 내조는 참석한 모든 가정의 신앙생활에 큰 자극 및

도움이 되었으며, 성경적인 가정경제생활, 자녀교육 등 초대된 선배가정들을 거침없이 솔직히 드러내어 놓고 경험과 해결방법 등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주간성경공부 장소 이전

본당1층 베다니홀에서 강의

교육위원회 산하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주간 성경공부 및 교사양성부 교육장소가 현재 사용중인 소석관 301호에서 본당 1층 베다니홀로 장소가 이전되었다.

이용자의 착오없기를 바라고 있다.

수화교육 계속 실시

교회학교 에바다부(부장/박인세장로)는

수화교육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교육을 4월17일부터 6월24일까지 실시한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충현훈련복 판매 1벌에 8천원씩

5월 12일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날 착용할 충현훈련복을 성도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동훈련복은 1벌에 8천원이며, 구입처는 교육위원회(소석관 103호)사무실이다.